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 포 즉 시	배포일시	2025. 2. 28.(금)
위원장	위성락	담당자	홍주송 비서관 02)784-1781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위성락 의원,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아

조현 前 외교부 1차관, 홍현익 前 국립외교원장 등 외교·안보 전문가 23인 참여
국익과 평화를 위한 실용주의 외교·안보 정책 발굴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위성락, 이하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특위’)가 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외교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한 이번 출범식에서는 외교·통일·국방·경제안보 등 분야별 전문가 23인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트럼프 2기 한국의 북핵정책 - 북한 ”핵보유국 지위“와 한국 ”핵무장“ 논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봉근 전 국립외교원 교수가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성락 의원은 주러시아 대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역임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첨예한 글로벌 외교사안을 다루어온 외교·안보 전문가다. 특위 부위원장으로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서형원 전 주크로아티아 대사, 박선우 육군대장 등이 합류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의장, 이용선 의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등 다수 국회의원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 중대한 도전의 시기에 외교·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우리 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의 출범은 외교·안보적 도전을 타개할 시의 적절한 대응이자 미래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위성락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한중관계와 한러관계는 수교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남북관계는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며 고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처럼 중대한 도전의 시기에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의 출범은 외교·안보적 위기를 극복할 시의 적절한 대응이자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특위는 한·미, 한·중, 한·일, 한·러 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체제 출범 이후 북핵 문제와 통상 이슈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한일관계개선을 지속하며, 중국과도 협력 영역을 확보하는 등 국익과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외교·안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 포스터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

“**외교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일 시 2025. 02. 28 (금)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특별 강연 트럼프 2기 한국의 북핵정책
- 북한 “핵보유국 지위”와 한국 “핵무장” 논쟁을 중심으로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한국핵정책학회장)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의원 위성락)



문의 | 위성락 의원실 (02-784-1781)